
 국토교통부 <small>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small>	보도자료		
	배포일시	2014. 5. 9(금) 총 6매(본문2, 붙임4)	
담당부서	첨단도로환경과	담당자	·과장 백현식, 사무관 박성룡, 주무관 송영란 ☎ (044)201-3927, 3932
보도일시		2014년 5월 1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11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한·미, 교통사고 예방 ‘차세대 ITS’ 협력방안 논의 12~14일 ITS 협력회의 개최...미·유럽 2016년 의무화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: 서승환)와 미국 교통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한·미 ITS 협력회의를 개최한다.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(ITS :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), 즉 C-ITS(Cooperative ITS) 협력방안이 논의된다.
 - * C-ITS :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급정거, 정차차량, 사고상황, 도로상 장애물 등의 정보를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 시설과 서로 통신하여 확인·전파하여 추돌·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협력형 ITS

-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3일 미 교통부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차량 간 무선통신 기술의 도입계획과 연구개발혁신청(RITA)이 시행한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공유하고, 향후 C-ITS의 국제규격화 등 중장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 - * RITA : Research &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(미 연구개발혁신청)

- 우리나라에서는 김일평 도로국장을 대표로 ITS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10명이 참석하고, 미국은 교통부 산하 연구개발혁신청장 그레고리 윈프리 청장(차관보) 등 5명이 참석한다.

□ 이번에 개최되는 한미 ITS 실무협력회의는 지난 '12.8월 C-ITS에 대한 기술개발과 국제표준 공동대응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미 양자 간 체결한 양해각서(MOU)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.

□ C-ITS는 차량 급정거 경고, 교차로 측면추돌 경고 등 기존 안전장치로 한계가 있던 추돌·충돌 사고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다. 이 때문에 미국, 유럽 등에서는 '16년 하반기부터 생산·판매되는 차량에 안전벨트, 에어백과 같이 안전장치로서 C-ITS의 의무 장착을 추진하고 있다.

* 미국 연구결과 C-ITS로 추돌·충돌사고 유형의 81% 예방가능

○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미국, 유럽의 자동차 안전규제에 대한 동향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금번에 개최되는 실무협력회의는 국내 자동차 산업과 부품업체, ITS 장비 업체 등 관련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전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박성룡사무관(☎ 044-201-39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추진배경**

- 양국간 C-ITS 분야의 연구개발 내용·효과·평가결과 및 현장시험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, 국제표준 대응 등 상호 협력 도모
- * 연 2회 정례 실무협력회의 실시(상반기: TRB, 하반기: ITS 세계대회)
- * MOU 체결('12.08), MOU 운영계획(TOR) 합의('13.07), 제1회 실무회의('14.1)

□ **협력회의 개요**

- 기간/장소 : '14.05.12(월)~14(수) 3일,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회의실
- 주요일정 : C-ITS 세미나, 스마트하이웨이 등 R&D 기술시찰
- 참 석 자
 - (한국) 국토부 도로국장 및 도로국 직원, 의제 관련 연구원 등
 - (미국) RITA 청장(차관보), ITS JPO 과장 등 4명 및 미대사관 1명
- * 교통연 및 건기연 등 ITS 관련 기관 약 10인 참관예정
- 논의주제
 - (한국) 한국 ITS 현황, C-ITS 기술개발 현황 및 도입계획
 - (미국) C-ITS 시범사업 추진결과

□ **주요 일정**

주요 일정	
5.12(월)	협력회의 (오전 미국 현황 발표/ 오후 한국 현황 발표)
5.13(화)	여주체험도로 (스마트하이웨이) 및 한국도로공사 센터 견학
5.14(수)	현대기아차 회의 / 출국

□ 차세대ITS 개념 (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)

- 차량이 주행 중 他차량 또는 도로시설과 지속적으로 통신을 통해 사고, 장애물 등 위험요소를 서로 공유하여 사고를 회피하는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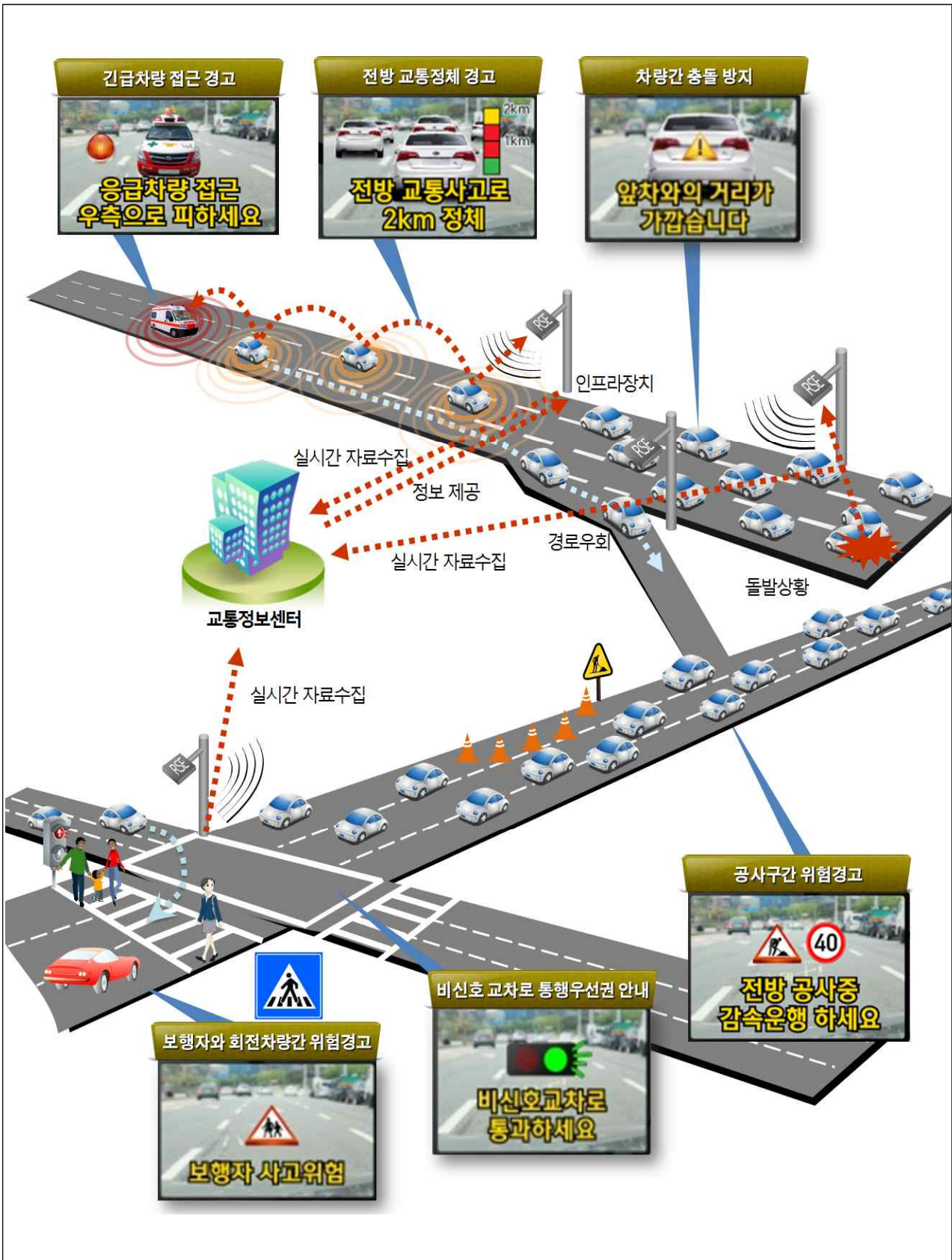
【 現 ITS 개념 】

【 C-ITS 개념 】

- (現 ITS: 단방향 정보제공) 교통정보의 수집·제공장치가 설치된 특정 도로지점에서 교통정보 수집·제공
 ⇒ 교통정체, 교통사고 발생, 장애물 낙하 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이후 정보를 제공받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
- (차세대 ITS: 도로와 차량이 협력)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시설 및 다른 차량과 서로통신하며 위험정보 전파·공유
 ⇒ 급정거, 고장 등 차량상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고, 낙하물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전파·공유하여 위험상황 즉각 대응

□ 차세대ITS 구축 효과

	미 구축시	ITS	C-ITS(추정)	비고
정보제공	-	소통정보제공	소통정보+안전정보	
혼잡비용	28.5조원('10년)	연 4,300억원 절감	연 8,000억원 절감	
통행속도 (도심)	20km/h 내외	15% 증가	30% 증가	
통행시간 (지역간)	18시간 ('02년 설 명절)	7시간 ('12년 설 명절)	좌 동	서울-부산 최대소요시간
사고예방	-	-	46%감소	총사고건수
사고비용	12.7조원('11년)	-	3.6조원 절감	
사고대응	30분	5분이내	5분이내	사고발생 인지 후 출동까지 소요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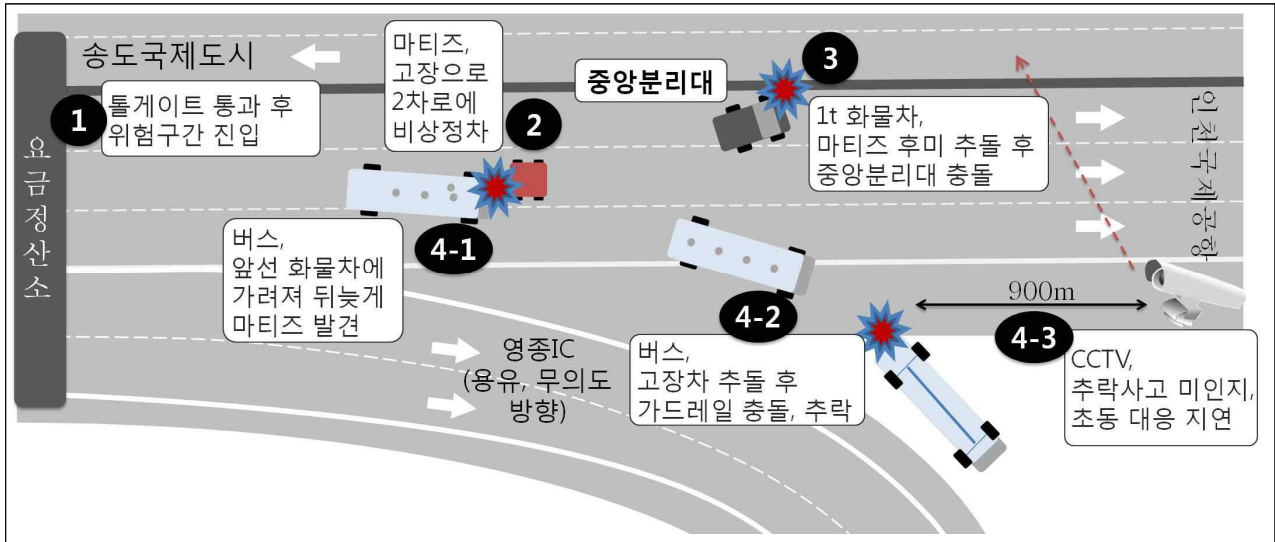


참고4

차세대ITS를 통한 사고예방 예시 (인천대교 사고사례)

□ 인천대교 사고(2010.7.3)로 14명 사망, 10명 중상

☞ 차세대ITS가 있었다라면 예방 가능



인천대교 사고 경위		적용가능 차세대ITS
①	 위험구간 안내 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로상태 경고 • 위험구간 주행지원
②	 마티즈 차량 고장 후 15분간 방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급상황 자동통보 • 차량상태 전파 • 긴급차량 통행 지원
③	 1t 탑차 마티즈 정차 모른채 충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지위험 경고 • 급정거 경고 • 전방 충돌경고 • 능동식 긴급제동
④	 후속 버스 회피시간 부족으로 2차 충돌 후 참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차선이탈 경고 • 국지위험 경고 • 급정거 경고 • 전방 충돌경고 • 능동식 긴급제동